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幕記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七、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영의(77)을 붙였다.

二、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하였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게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世祖實錄

世祖十三年(成化三年).....一

世祖十四年(成化四年).....三

睿宗實錄.....一五

睿宗零年(成化四年).....一七

睿宗元年(成化五年).....一八

成宗實錄.....一九

成宗零年(成化五年).....二七

成宗元年(成化六年).....二九

目次

二

成宗二年(成化七年).....	二〇一
成宗三年(成化八年).....	二〇四
成宗四年(成化九年).....	二〇六
成宗五年(成化十年).....	二〇八
成宗六年(成化十一年).....	二一〇
成宗七年(成化十二年).....	二一三
成宗八年(成化十三年).....	二一七
成宗九年(成化十四年).....	二二六

世祖實錄

卷四十三

十三年七月

辛未○大司憲梁誠之上書曰臣伏聞殿下親御六飛往征朔方士氣十倍賊膽先破可謂屈人兵於不戰者也然今溽暑方深玉體不可先勞乞先命大將領大軍前進以圖萬全及秋霖始霽大駕巡臨以慰父老又今賊未授首與江外諸種連結誠爲可慮今幸據北青之地而甲山之路通須募土人大加賞爵由甲山之路入端川之北予以入三東良之地以高爵束帛啗其酋長兼諭六鎮人民雖不能盡得其力亦可以制首尾之勢矣今日東北之變幸得平安之力以制之兩界相制最爲得策若兩界俱有兵患則東西奔命非細故也今聞押解唐人若押解此人則建州之怨始矣今押解官朴枝猶在

境上可及未越江之時遣人星馳止之更留聖慮曲盡處置軍國幸甚傳曰已知汝意

甲戌○先是諭平安道節度使韓繼美遣兵五百迎進鷹使成允文至是繼美馳啓曰本道兵赴咸吉道留兵數少請減數以送上廣問諸將等衛將柳均曰如此用兵之時不可遣兵迎來且允文一介臣雖或死亡何傷單身潛來亦可也壽城都正昌曰平安留兵雖少時無邊釁況遼東往還不多日乎孤軍迎來賊變可畏柳均此言誠孟浪也上令均昌相詰二人厲聲爭是非良久不已上哂之命依前數往迎

十三年八月

〔參〕己亥○大司憲梁誠之上書曰臣謹將管見仰瀆天聰伏惟睿覽〔中略〕一自

古亂臣之竊據者必叛付中國以爲聲援前朝趙位寵附於金而金世宗

不受崔坦等附於元而元世祖受之至於趙暉卓青以東北面附於元元置雙城總管府今吉州賊若假息數月間則意必潛通中國以令其衆若如此則勢已成而且甚有難處之事是雖不可具由奏聞亦不可不先事圖之今賀聖節擇遣入朝宦官之族多賫土物以布腹心又遼東及禮部官處量贈國驢以通信義予以遏賊謀予以孤賊勢不勝幸甚

戊申○咸吉道宣慰使盧思慎辭上親授方略仍以諭書授都總使浚曰建州衛野人作賊義州釁隙已成今秋冬防禦實緊欲用康純備西北面事定卽日可諭康純精擇京軍官一百平安道兵二千又擇裨將若干急赴平安道待命又皆遙制之言不可盡從

庚戌○進鷹使成允文賁遼東都司征勦夷寇及解送人口咨文二通回自大明復命其征勦咨文曰成化三年八月初五日承奉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劄付爲征勦夷寇事及奉欽差總兵

官靖虜將軍武靖伯趙劄付俱爲前事近節該欽奉勅得爾等奉處置虜酋童山等事情已勅廷臣會議勅至爾等若別方略亦聽從長計議以靖邊方一面整擄軍馬以圖大舉今後彼處一應邊情軍務悉聽爾等便宜而行欽此欽遵會同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議得建州三衛世蒙國恩授與官職以榮其身撥與土地以安其居邇者悖逆天道累犯遼東邊境致厪聖慮特命當爵等統調大勢官軍將以搗其巢穴絕其種類以謝天神之怒以雪生靈之忿但緣建州後路與朝鮮國地方相連慮有殘賊敗走遁入彼國邊方逃命投生爲照朝鮮國乃禮義之邦自祖敬順朝廷好善惡惡彼此同心縱有前賊奔入邊境必能拒而擒捕已經議奏請勅朝鮮國王隨機設備截其後路朝夕允降誠恐路途寫遠又恐賊寇阻絕一時未達本國矧今當爵等統率重兵定擬九月初旬諸道并進剋期勦滅

及照朝鮮國原差進貢使臣回還亦被建州賊寇阻絕道路久滯遼東三箇月餘致勞彼國人馬遠接方得前去況朝鮮與建州素有世讎復讎之義誠不可緩亦當乘此大舉共圖勦滅宜令都司備行本國就與使臣齎回先行啓王知會先爲豫防倘遇建州窮寇奔遁到彼就便截殺所獲虜賊差人解送遼東都司監候或以近就_(候力)近徑送軍前定奪有功人員備將擒斬功次職役姓名明白開報以憑奏請獎諭重加旌賞若係我邊被搶男婦來降者審悉明白起送前來受降人員一體重加旌賞毋以勅書未到爲嫌如此則兵威愈振夷寇易滅邊鄙可以安靖彼此可以有益除具題外爲此合行劄仰本司着落當該官吏照依會議內事理施行奉此合行備咨就付本國使臣齎去煩請依文施行其解送咨文曰成化三年八月初二日承奉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劄付爲走回人口事據遼東都

司呈將走回男婦審得一名金小厮卽牟斤重年二十四歲係朝鮮國義州城人天順四年十月內是斤重前去鴨綠江島中收割田禾被建州衛先不知名達賊後知是產捌等人馬到彼將斤重等搶擄去訖斤重一向在產捌家使喚成化三年三月失記的日有產捌等又來遼東地方搶去沙兒寨屯住東寧衛左所千戶金鼎弟金倫妻金氏卽林氏并伊本所餘丁金長命女金氏到家一同住過本年七月內有彼處達賊聽知遼陽人馬於九月十月間要來征伐各賊商議著家小搬運食米俱入深山藏躲去訖精壯人馬俱來各寨等候斤重恐怕連累受害又因本國地方寫遠與同槍去婦女金氏等商議窺伺產捌等不在偷拐本賊栗色騾馬一匹弓一張箭十枝一同寅夜逃走前來到於地名塔刺邦口入境被按伏官軍捉送按伏都指揮孫能處審供之時是斤重隱下係朝鮮國人氏供係東寧衛左

所千戶金鼎下家人金小厮名字林氏金氏供同備由連人同帶來
弓箭馬匹呈送到院參照牟斤重等既係被賊搶擄今已走回俱合
給親隨住緣牟斤重係朝鮮國人氏今本國義州見差團鍊氏俞山
寶等迎接赴京回還陪臣見在合行遼東都司即將牟斤重給與衣
糧行令俞山寶等順帶回還召人認領金氏等收發該衛給親完聚
帶來弓箭給與牟斤重領用馬匹審得牟斤重執稱中途因病倒死
別無定奪爲劄仰本司著落當該官吏依文施行仍行朝鮮國王及
鎮守巡撫遼東等官知會毋得違錯不便奉此案照先准新通遠堡
按伏都指揮同知孫能咨送各人到來爲無的實來歷緣由已經連
人劄發斷事司與同通事百戶高亮會審明白供詞連人呈送到司
差舍人張遠管送走回人口馬匹等件前去告稟及將審過供詞開
呈欽差鎮守遼東總兵等官宣城伯衛等處去後今奉前因擬合通

行除將送到走回人牢斤重給與衣糧付陪臣成允文收領順帶回
還外合行咨請照驗審發施行

〔參〕癸丑○諭會寧鍾城穩城慶源慶興等邑住諸種野人曰李施愛以私讎
報復殺害諸邑諸鎮守令節度使自知罪重因而嘯聚兵馬叛據窟穴命
四道兵馬都摠使龜城君浚討之天威一加逆賊伏誅梟首于京傳屍四
方爾等其各知悉此意但路梗未及曉諭爾等此事不干於爾毋或騷擾
各安其居可於今冬歲時頭頭人上來見予

〔參〕甲寅命雲水副守孝誠訓練院都正韓致義前司直李居仁各領兵一千
分運往平安道人給十五日糧及造衣絛布

乙卯○御扎諭平安道赴防軍士等曰初徵聚汝等者欲以親率北
征也及今賊已平定當還汝等近日聞中國欲征建州徵兵於我予
已布置整齊平安軍士及咸吉道北征諸將及京軍士足以應變汝

等但守平安道沿邊虛處耳無所用於征代也汝等若有募者募之

(伐力)

不肯者不强遣一從情願汝等知之其論賞罰一如咸吉從征軍士

〔參〕丙辰○訓練都正韓致義領兵一千辭

〔參〕丁巳○李居仁領兵一千發向平安道官給衣糧如韓致義軍居仁以父喪在外至是起復而遣之

〔參〕○傳于戶曹曰今徵來諸道軍士考兵曹軍目人各給二十日糧

戊午○都摠使浚遣馬賢孫以李明孝趙孝昌之首來獻上引見于集祥殿召其父興貴命賢孫帶金帶曰罪則父子緣坐賞豈獨異乎命興貴帶鍬金帶賢孫啓曰初李施愛數使人賄誘諸種野人請兵野人等曰我等蒙國厚恩何敢聽汝言耶汝則在軍我等掠汝妻子與官軍夾擊則可以報殿下之恩矣施愛賄賂百端終不聽

〔略下〕

○御扎諭野人等曰汝等不忘我恩拒却施愛欲擄賊之妻子與我

兵夾攻殲滅予固知汝等知我愛汝今益知汝等誠欵今冬可來見我汝等之功來後乃知又諭都摠使浚曰今聞李施愛重賂野人請兵者非一野人受其賄而不應曰上德至重不敢忘恩施愛反逆吾等盡虜賊之妻子與官軍夾擊盡殺之以報上德爾其遣人宣布諭書之意問其功誠等第以啓

〔參〕戊午○遣都承旨權孟禧于平安道調發北征軍士

○庚申御集祥殿召高靈君申叔舟左議政崔恒右議政洪允成右贊成金國光右參贊尹弼商行護軍南怡及承旨等議應接遼東軍事遂以弼商爲平安道宣慰使雖號爲宣慰而其實欲節制諸軍攻建州衛也上親製事目以授弼商一遼東承聖旨而移咨則當矣不俟聖旨而咨曰勿待勅書而當從我令此何義也我若聽從回咨而聖旨不准則如之何若武靖伯大敗而我軍大破之則朝廷貪殘之

議益的矣武靖伯必受罪我亦似嫌於交通邊將之責一期勿越江而勅書若越江助戰則如之何一在吾計當遣人預整精兵以待康純而授之不預則軍民常慮急遽之令無安心之日矣一若遼東都司問何不回答以勅旨未到未即回答然皇帝用兵我國豈不助些小之力是故殿下已嚴兵境上相幾攻打欲獻俘軍前若逃來者邊將自有處置不必嚴兵一若官軍向江上來送通事以上命告曰前日成允文來聞大人九月望時奉勅征建州我已嚴兵境上今諸將(候力)官軍入征時攻其後大人知道若言越江假道則通事以自意進前耳語荅曰無舟揖渡大兵極難且江邊路險狹魚貫而行不得并馬不可計日而行遲則賊必知而遁不如從直路速入攻又應接之事不備此事甚難大人更思之一武靖伯近來江邊則宣慰使隨宜或出見致禮意或送人致意或因來人致意而聲言已還實則往